

광주매일신문 제13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1강-‘혐오의 시대, 사랑이 필요한 이유’

박구용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현대사회 고통의 뿌리는 외로움... ‘제3의 장소’ 중요”

가속사회·기술 발전 속성과 경쟁 심화
젊은층 다수 ‘자기 자신의 기업인’ 자처
억눌린 욕망 ‘리스상트망’ 형태로 분출
“가족·직장 밖 관계 형성 능력 길러야”

“현대사회의 모든 고통의 뿌리는 단 하나,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결국 누군가와 친해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광주매일신문이 주최한 제13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1강좌가 지난 29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L7 층장 바이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박구용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혐오의 시대, 사랑이 필요한 이유’를 주제로 가속화된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겪는 불안과 고립, 혐오가 형성되는 과정과 관계 회복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교수는 먼저 사랑을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아닌 ‘기르’는 관계’로 바라봤다. 그는 “사람은 자신이 기른 것을 가장 그리워한다. 꽃도 그냥 예쁘다고 보는 것과 내가 직접 기른 꽃을 보는 것은 상황이 달라진다”며 “사랑은 어찌 보면 기른 것과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워진 원인으로 끊임없는 ‘가속’을 꼽으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늘었지만, 그만큼 사회가 요구하는 일의 양도 함께 늘었다”고 해석했다.

박 교수는 이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논문 작성에 비유했다. 그는 “예전에는 논문 한 편을



광주매일신문이 주최한 제13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1강좌가 지난 29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L7 층장 바이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박구용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혐오의 시대, 사랑이 필요한 이유’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서형우 기자

쓰려면 6개월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지금은 AI를 활용해 한 달 만에 작성한 후 5개월이 남게 된다”며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가만히 있게 두지 않는다.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수록 우리가 노동에서 자유로워지는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대인은 사회 구조의 문제마저 개인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관리한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현대 젊은 층들은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기업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젊은 세대로 갈수록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을 탓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해설했다.

이러한 자기 억압이 쌓이는 과정에서 혐오가 싹틀 수 있다고 봤다. 박 교수는 이를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정립한 ‘리스상트망(ressentiment·원한 또는 원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오랜 시간 욕망을 억누르고 참고 견뎌온 사람이 자신과 달리 욕망을 자유롭게 드러내거나 별다른 희생 없이 무언가를 얻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 원망과 적대감을 품게 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현대인의 단절을 한 소파에 함께 앉아 있으면서도 각자 스마트폰을 통해 서로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가족에 비유하기도 했다. 몸은 가까이 있지만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관계를 맺는 힘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끝으로 그는 현대사회의 모든 고통의 뿌리는 ‘외로움’이라며 이의 해결책으로 가족과 직장을 벗어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제3의 장소’를 언급했다.

박 교수는 “은퇴하고도 외롭지 않게 살려면 제3의 장소를 두둑게 형성해야 한다”며 “누군가와 친해질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기를 것인지가 현대인에게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역설했다.

/서형우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 서구의회 방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는 30일 “전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이 주민자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서구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주민자치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지방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종환 의장은 “지방의회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광산구청 시민광장 ‘아름다운 공간상’ 수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는 30일 “청사 내에 조성된 시민광장이 전남광주특별시 주최·(사)나눔심는건축인 주관 ‘2026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산구 시민광장은 관공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존 야외 화단과 유류 부지를 잔디광장·데크 쉼터로 정비해 지난해 10월 개장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시민광장은 시민이 주인이라는 구정 철학을 온전히 구현한 열린 공간”이라며 “시민 참여와 소통을 이끄는 공간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육근 기자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목포야 반갑다’ 발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의회가 지역 바다와 섬, 원도심 관광자원을 융합한 체험형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30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 ‘목포야 반갑다’가 전날 의회 시민의방에서 발족식을 열고 해양관광 활성화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김호한 의원(회장)과 안하늘 의원(간사) 등 총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목포야 반갑다’는 단순 관람 형태의 관광에서 벗어나 방문객이 직접 체험하고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도시 도약 방안을 연구한다. 연구단체는 해상게이볼가, 평화광장 등 기존 인프라에 키누·요트·섬 체험·어촌

연계 프로그램 등 새로운 체험형 콘텐츠를 접목해 관광 외연을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적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 모델을 개발해 방문객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어민과 마린, 레저업체 등이 관광 사업에 동참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역 기반 관광 생태계 조성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김호한 회장은 “목포 바다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의 장을 넓혀야 할 때”라며 “관광객이 하루 더 머물고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수완 아름 휴먼시아 2단지, 나눔 공동체 ‘활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있는 LH 수완아름마을 휴먼시아 2단지 입주민들이 공동 돌봄과 나눔 공동체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입주민들은 광산구 지원을 받아 40여개의 텃밭상자를 제작, 입주민들이 채소를 공동으로 가꾸고 나누는 것은 물론 경로당에 기증하는 등 화합의 아파트를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전남광주교육청 사업으로 입주자 자녀를 위한 독서활동, 요리지도가 포함된 방과후교실까지 운영하는 공동 돌봄 프로그램과 수경식물을 재배하는 등의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특히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광주 온도 낮추기 운동’에도 적극 참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으로 부터 최우수 아파트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아파트는 빗물저금통을 설치해 텃밭, 조경수, 생활용수로 빗물을 재활용하는 한판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매일 비교할 수 있는 녹색게시판▲일회용품 줄이기▲폐기물 재활용▲찾아가는 자전거수리 등 탄소중립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강성욱 관리사무소장은 30일 “갈수록 삭막해지는 아파트 생활을 정이 넘치는 마을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입주민들과 함께 노력 중”이라며 “어린 자녀들과 어르신은 공동체가 보살피고, 탄소중립까지 실천하는 건강한 아파트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장성학부모회聯 독서교실, 인문학 기행 성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장성교육지원청은 30일 “최근 2박3일 일정으로 장성학부모회연합회 인문학 독서교실 회원과 함께 ‘해녀의 바다에서 배우는 제주, 삶과 공동체’를 주제로 한 제주도 인문학 기행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인문학 기행은 제주 해녀의 삶과 문화를 체험하며 해녀의 역사와 공동체 정신, 제주 자연환경의 가치를 이해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부모들은 해녀들을 만나 삶과 문화, 바다와 함

께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들었으며 독서 토론과 문화 나눔 활동에 참여했다. 해안 정화 활동을 실시해 해양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해녀들의 삶과 자연과의 공존 가치를 이해했다.

김희옥 장성교육장은 “인문학 기행에서 배운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과 나눔·협력의 가치를 자녀에게 전달함으로써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기우는 교육으로 연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김춘성 조선대 총장, 中 산둥성 엔타이시 방문

‘중·일·한 혁신협력센터’와 협약 체결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이 최근 중국 산둥성 엔타이시를 방문해 ‘한·중·일 혁신협력대회’에 참석해 ‘동북아 혁신협력 싱크탱크연맹’ 출범을 함께했다.

조선대는 싱크탱크연맹 참여를 계기로 동북아 지역 대학·관련 기관들과 혁신 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공동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김 총장은 중앙한·중·일 혁신협력센터와 ‘양방향 과학기술 인큐베이팅 혁신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구체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AI·디지털미디어·스마트하만 물류 분야 연구·플랫폼 구축을 비롯해 기술사업화와 산업 연계, 인재·학술 교류 등을 공동 추진한다. 이와 함께 김 총장은 ‘한



·중 청년기업가 혁신협력 교류회’에도 참석, 축사를 통해 양국 청년 기업가 간 교류와 실질적인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춘성 총장은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일 뿐 아니라 산업·기술·인적자원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강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교류회는 양국 청년 기업가들이 발전 기회를 함께 모색하고 협력의 폭을 넓힐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농협곡성군지부·광주대, 화훼농 일손 돕기

농협곡성군지부는 30일 “최근 군지부·육과농협 임직원과 광주대학교 봉사동아리 학생 50여명이 가을철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곡성군 옥곡면 한 화훼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품성 유지를 위한 장미 수형 관리와 세운 제거 작업 등에 구슬땀을 흘렸다.

한대웅 농협곡성군지부장은 “인력 부족으로 애를 태우는 농촌 현장에 달려와 준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수확철을 맞아 일손이 시급한 농가를 찾아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본사 손님

▲김호승 전남경찰청장 ▲마정훈 〃 홍보팀장